

KEDO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과 원자력수출통제 규범 적용
KEDO LWR Construction Project and Application of
Nuclear Export Control to the Project

김종숙, 이종욱, 김경진, 민경식, 최영명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요 약

북한이 IAEA와의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최초보고서 제출시 발견된 불일치 문제는 많은 위기 국면을 지나 북·미합의를 통해 북한과 미국이 각각 이행해야 할 사항에 합의하였다. 그중에 하나가 북한이 운전 혹은 건설중인 원자로를 2기의 경수로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이의 이행기구로서 KEDO가 설립되었고, 현재 KEDO-북한간 공급협정에 의거하여 KEDO의 주계약자인 한전이 북한의 금호부지에 경수로를 건설중이다. 또한, 건설과 관련하여 원자력 품목들의 대 북한 이전을 위해서는 국내 수출통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 논문에서는 원자력수출통제 관점에서 바라본 KEDO 사업을 개관하고, 경수로의 상당부분이 원자력주요품목의 최초 인도 전까지 부지로 이전되어야 할 기술 문서들에 대한 국내 원자력수출통제 방침과 허가 요건 및 금호부지에서의 DDCC 운영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원자로시설의 검사규정 개선방향

Improvement Approach to Regulations for Inspection
of Nuclear Reactor Facilities

안형준, 오병주, 최영환, 조두연, 우승용, 강석철, 이종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19번지

요 약

2001년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원자로시설의 검사에 관한 규정으로는 사용전검사와 정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신규로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이 요구되는 규정으로는 기존의 고시 제98-15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점검 및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 제96-39호 "원자력 관계시설의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원자로시설의 검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소개하였다.